



사진 / 디스카버리투어 제공

ART TOUR

아트 투어 명작이 이끄는 감동 여행

예술은 만국 공통어다.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 부문의 명작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동은 인종, 민족, 종교를 초월한다. 예술은 여행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여행 실태 및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은 테마여행 경험 부문에서 '음식', '역사·전통문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좋아하는 예술가의 작품과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개별여행, 패키지, 에어텔, 단체배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트 투어'를 소개한다. 글 장성배 기자

문명과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에는 강한 인력(引力)이 작용한다. 불후의 명작이 여행을 이끄는 동력이 되는 이유이다.



1

사진 / 프랑스관광 제공

2



3

사진 / 독일관광 제공

1 프랑스 아를의 도개교와 이를 모델로 한 고흐의 작품 2 노르웨이 오슬로 비겔란 조각공원 3 바흐를 찾아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한 관광객들.

현재 지구촌 최고의 예술 여행지는 유럽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 전역에 산재해 있다.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아야 소피아 등 인류 문명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건축물을 통해 명멸해 간 옛 국가들의 영화를 엿볼 수 있다. 또 화산재에 파묻혔던 도시 폼페이와 벽화부터 20세기 초현실주의 작품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회화와 조각품을 박물관, 유적지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바흐, 모차르트, 베르디 등이 빚어낸 불후의 선율은 음악회와 축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프랑스 아를(Arles), 오베르 쉬르 와즈(Auvers-sur-Oise)는 유럽 미술 투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통한다. 강렬한 색채와 필치로 불멸의 화가 반열에 오른 빈센트 반 고흐(1853~1890)가 생애 마지막 거처로 삼았던 곳이다. '해바라기', '아를의 고흐의 방', '닥터 가셰의 초상' 등 걸작들이 탄생한 곳으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버킷 리스트 여행지로 꼽힌다. 파리 오르세박물관에서 고흐의 실제 작품을 감상하기 전 또는 그 이후의 여행지로서 제격이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자리한 아를에는 고흐 작품의 배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 묘사된 포럼 광장의 카페를 비롯해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에'의 배경인 론(Rhône) 강변, '아를의 도개교'의 모델인 '반 고흐 다리'(Pont Van Gogh)를 만날 수 있다. 고흐가 고갱과 함께 살았던 공동 작업실인 '노란 집'(Maison Jaune)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반 고흐 호텔'이 들어서 있다. 또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입원했던 병원 자리에는 문화센터가 조성돼 있다.

파리 도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오베르 쉬르 와즈는 고흐가 생애 마지막 두 달가량을 보낸 마을이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오베르의 교회' 등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각 작품의 배경지에는 고흐 작품 복사본을 전시해 120여 년 전 풍경과 비교가 가능하다.

독일 라이프치히는 유럽 '아트 투어' 여행지 중 음악 애호가의 선호도가 높다. 바로크 음악을 완성해 서양 음악의 기틀을 마련한 바흐(1685~1750)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다. 바흐가 27년 동안 음악감독을 지낸 성 토마스 교회가 자리해 있으며 바흐 박물관이 운영된다. 바흐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 겸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며 마태 수난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비롯해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

대표작을 빚어냈다. 이를 기념해 라이프치히에선 20세기 초부터 매년 여름 '바흐 페스티벌'(The Bachfest Leipzig)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유럽 '아트 투어'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곳이다. '절규'로 잘 알려진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1863~1944), '슬베이지의 노래'를 작곡한 에드바르 그리그(1843~1907), 북유럽 대표 조각가인 구스타프 비겔란(1869~1943)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뭉크의 발자취는 오슬로 '내셔널 갤러리'와 '뭉크 뮤지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오슬로 예케베르그 공원에 오르면 '절규'가 탄생한 피오르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다.

그리그의 음악 흔은 노르웨이 서남부 해안의 항구도시 베르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그는 독일 유학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베르겐에서 머물며 작곡을 했다. 그리그가 살았던 목조주택 앞에는 그리그 박물관(콘서트홀 포함), 그리그 부부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콘서트홀에선 매년 여름 정기 공연이 개최되는데 올해는 6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된다. 베르겐에 있는 여행자 안내센터 또는 이메일(booking@Troidhaugen.no)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비겔란 조각공원은 오슬로 시내 북동쪽 드넓은 평원에 조성돼 있다. 청동, 화강암 등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작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기쁨과 슬픔, 격정과 허무의 극적인 순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감동과 놀라움을 자아낸다.



1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축제 기간에 원형경기장에서 열리는 야외 오페라 공연. 2 체코 프라하 로브코비치 궁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콘서트.



2

베로나 오페라 축제 상품 출시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로나(Verona)는 오페라 애호가들이 일생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다. 매년 여름 세계 최고 명성의 오페라 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는 6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다.

베로나 오페라 축제는 1913년 로마시대 원형경기장인 아레나(Arena)에서 열린 주세페 베르디(1813~1901) 탄생 100주년 기념 야외 오페라 공연이 그 시작이다. 축제 기간에만 세계 각지에서 약 5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베로나 오페라 축제 참관 상품은 디스커버리투어(www.discoverytour.com)가 판매 중이다. '영웅들의 걸작, 베로나 오페라 축제' 상품으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7박 9일 일정으로 최소 출발 인원은 7명, 상품 가격은 950만 원이다. 대한항공 인천-밀라노, 로마-인천 직항편을 이용하여 5성급 빌라에서 숙박한다.

'영웅들의 걸작, 베로나 오페라 축제'는 베로나 도착 이튿날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 관람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 일정 셋째 날에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넷째 날에는 푸치니의 유작인 오페라 '투란도트'를, 다섯째 날에는 베르디의 '아이다'를 관람한다. 관객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연장에서 열리는 오페라를 VIP석(총 300석)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투어는 '특별 관심 여행'(Special Interest Tour)을 표방한 여행사로 이탈리아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며 경영학과 모방미술을 전공한 이현동 대표가 설립했다. 지역 기반의 일반적인 여행 상품과 달리 인문학, 백야, 오로라, 와인, 커피 등 특정 주제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예술 관련 주제로는 오페라, 박물관, 콘서트, 비엔날레 등이 있다.

디스커버리투어의 프로그램(항공권, 숙박 포함 상품)은 총 22개가 운영된다. 이 가운데 10개는 7명 이하 소그룹 상품인 '디스커버리 그리드 프로그램'으로 주제 해설 여행 전문가인 '맵헤드'(Map Head)가 전체 일정을 이끈다.

디스커버리투어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소문로 본사에서 맵헤드와 함께하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화(02-752-6207), 이메일(map@discoverytour.com)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유럽에선 가이드 해설 투어 활성화

현재 일반 여행사 중 '아트 투어'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는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등이 있다.

'아트 에어텔'(Arts Airtel)은 하나투어의 대표적인 '아트 투어' 상품이다. 아트(Arts)의 스페인어 발음인 '아르츠'와 '에어텔'의 합성어다. 전체 자유여행 일정 중 하루는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지역별 문화 예술 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 런던은 대영박물관과 내셔널 갤러리, 파리는 루브르박물관과 몽마르트르 언덕, 로마는 바티칸, 바르셀로나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을 둘러보게 된다. 상품 가격은 지역별로 세분화된다. 5월 출발 상품의 경우 런던 6일이 149만 원부터, 파리 6일은 164만 원부터, 로마 6일은 144만 원부터, 런던/파리 8일은 164만 원부터다.

하나투어의 프리미엄 여행 브랜드 '제우스' 상품 중에도 '아트 투어'가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5월 15일 출발하는 '홍콩 아트 바젤 4일' 상품으로 아시아권 최대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아트 바젤 인 홍콩'을 참관하는 일정이다. 최유진(부띠끄모나코미술관 부관장) 큐레이터가 동행하며 상품 가격은 199만 원이다.

한편 올해 '아트 바젤 인 홍콩'은 5월 15~18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세계 39개국 갤러리 245곳이 참여한다.

한진관광은 비상설 기획 상품의 일환으로 아트 투어 성격의 문화 탐방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로 잘 알려진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떠나는 스페인(11일, 1천100만 원대), 터키(10일, 1천200만 원대) 상품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진행했다.

'지식 가이드 투어'는 박물관, 미술관, 건축물 등에 대한 워킹 투어 해설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찾은 개별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지난 3월 '꽃보다 할배'를 통해 소개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두 상품 모두 여행 기간에 이 교수가 방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서너 차례 개최했다. 이 교수와 함께 떠나는 유럽 문화 탐방단은 오는 7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 떠날 예정이다. 11일 일정이며, 1인당 참가비는 1천200만 원대다.

내일투어에는 배낭여행객을 위한 현지 여행 상품인 '프리미엄 서비스'의 라인업 가운데 하나로 '아트 투어'가 구비돼 있다. 현지 전문 여행업체와 제휴해 진행되는 '지식 가이드 투어'가 대표적이다.

'지식 가이드 투어'는 박물관, 미술관, 건축물 등에 대한 워킹 투어 해설 프로그램으로 내일투어의 경우 유로자전거나라(www.eurobike.kr) 소속 가이드가 주관한다.

유럽 '지식 가이드 투어'는 유로자전거나라 외에 유럽산책(www.walking-europe.com), 헬로우트래블(www.hellotravel.kr) 등 여러 전문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 전 또는 현지에서 예약한 후 지정된 시간, 장소에 나와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1일 투어의 경우 참가비는 3만~5만 원대(입장료, 교통비, 점심 불포함)이다. 지난 3월 방송된 '꽃보다 할배' 스페인 편에선 이

순재, 신구 등 출연진 4명이 유로자전거나라의 '바르셀로나 가우디 집 중 투어'에 합류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등을 돌아보았다. 서상명 유로자전거나라 차장에 따르면 '지식 가이드 투어' 이용객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박물관과 유적지를 계속 걸어서 설명을 집중해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용기를 내어 도전한다면 훨씬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로자전거나라의 경우 현재 로마, 피렌체, 파리, 런던, 프라하,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라나다 등 유럽 9개 도시에서 지식 가이드 7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참가객은 무선 마이크와 이어폰을 통해 가이드

북과 온·오프라인 백과사전을 넘어서는 전문 지식은 물론 최신 여행 정보까지 덩어로 얻을 수 있다.

'아트 투어' 전문 여행사는 극소수

지난 2002년 문을 연 유앤지투어(www.arttravel.co.kr)는 국내 최초 '아트 투어' 전문 여행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출신

의 유봉열 대표 등 임직원이 미술 전공자이거나 현역 작가다.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상품을 시작으로 중국 베이징 아트 투어, 터키·그리스 아트 투어, 안도 다다오와 나오시마 프로젝트 등을 기획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참관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유 대표는 "'아트 투어'의 저변은 확대되었지만 수요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아트 투어' 상품 이용객 중 일반 예술 애호가의 비율은 20~30% 정도입니다. 선진국에선 '스페셜 인센티브 투어'의 이름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었지만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트 투어' 전문 여행사가 몇몇 생겨났지만 1년 만에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유앤지투어는 5월에 2박 3일 일정의 홍콩 아트 바젤 상품(2개 팀, 총 50명)에 이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스페인 아트 투어 상품을 진행한다. '김태호 교수와 함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과 현대미술 투어'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파블로 피카소,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후안 그리스 등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프라도 미술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등을 방문한다. 또 스페인 고딕 건축물을 대표하는 세고비아 대성당,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등 건축물 투어도 진행된다. 대한항공(암스테르담 경유)을 이용하여 최소 출발 인원은 30명, 상품 가격은 424만 원이다. 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입장료, 가이드와 기사 팁 등이 포함돼 있다. Y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 바젤 인 홍콩'.